

# 자본주의 시대 '돈과 전쟁' 불교서 해법 찾다

“돈은 현대사회 불가피한 조건”  
돈 의미 바로 봐야 종속 안 돼  
‘돈=만능 해결책’ 생각 버려야  
환상 극복에 불교 도움 될 것



로이터통신이 8월 25일 '불교와 돈'을 주제로 에단 닉턴(Ethan Nichtern) 작가를 대담을 진행했다. 사진출처=Ethan Nichtern 공식홈페이지

## 美 에단 닉턴, 로이터통신과 '불교와 돈' 주제로 대담 명상·불교심리학 강연하며 불법 '홍포'... 6월 책도 출간

Home(집으로 가는 길)은 뉴욕에서 서 베스트셀러로 널리 읽히고 있다. 이 책은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상에 지친 뉴욕 커 여성이 자신의 불성을 찾아 깨달음의 여정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의 웨스트사이드(West Side)와 이스트빌리지(East Village)에서 성장기를 보내며 ‘현대 사회에서 돈의 의미와 그 쓰임’을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는 에단은 “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대부분 돈을 벌고 지키는데 집착한다”며 “이는 우리가 돈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그 해법을 찾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성을 보인다. 모든 문제와 그 해법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돈과의 균형 찾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돈에 대해 잘못된 환상을 만들고 그 환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듯하다”는 에단은 “개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 이외에 무엇이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돈이 끼어들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드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에단은 돈에 대한 환상을 극복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돈은 처음에는 ‘길’이었고 다시 ‘중이’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컴퓨터 파일의 ‘숫자’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 ‘실물’이었던 돈이 이제는 ‘관념’이 되어버렸다.

에단은 “우리는 그 관념에 의존한 채 점차 자신의 정체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 같다”며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불교적 가르침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주목했다.

그렇다면 돈을 긍정적인 삶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이에 대해 에단은 ‘교환’이라는 과정을 통해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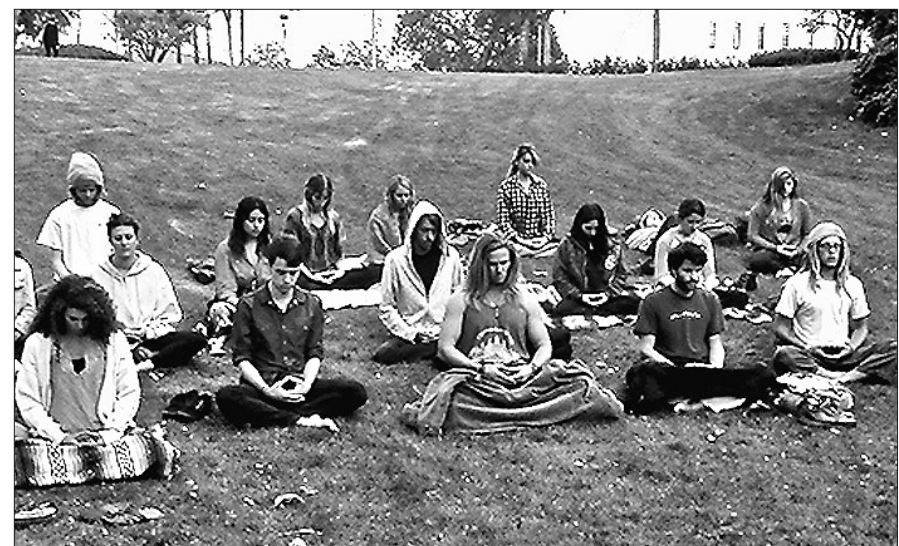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있다면 그는 분명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돈은 쓸모가 없다”고 전제한 에단은 “개인의 계발을 중시하는 불교는 ‘스스로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며 “자신을 계발하면 돈의 역할 역시 스스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힘이 바로 돈에 종속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은 “에단 닉턴은 일상에서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돈을 사용하는 기준으로 ‘자비와 연민’에 주목하고 있다”며 ‘돈과 불교’를 주제로 한 에단 닉턴과의 대담을 정리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이나 조직과의 관계 속에서 관념화 된 돈의 의미와 쓰임을 고민하기 보다는 불교적 사유를 나침반으로 삼아 돈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스스로 그 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데 주목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샌디에이고대 첫 '불교사교클럽' 개설

제프 조로트닉 법사와 재학생 합심해 9월 중 개설  
男 델타베타세타 · 女 델타베타타우 따로 결성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불교남성사교클럽 '델타 베타 세타(Delta Beta Theta)'와 불교여성사교클럽 '델타 베타 타우(Delta Beta Tau)'가 9월 중 결성될 예정이다. 이에 제프 조로트닉 법사를 비롯한 재학생들은 캠퍼스 2차 대중명상을 실시하는 등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처음으로 불교사교클럽이 열린다.

'Daily Aztec'은 8월 28일 "샌디에이고 대학에서 첫 남·여 불교사교클럽이 각각 결성된다"며 "불교남성사교클럽 '델타 베타 세타(Delta Beta Theta)'와 불교여성사교클럽 '델타 베타 타우(Delta Beta Tau)'가 9월 중 캠퍼스에서 첫 선을 보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재학생 예비 커벤츠(Abby Cervantes · 3학년)와 그의 스승 제프 조로트닉(Jeff Zlotnik) 법사가 준비하는 불교사교클럽은 이미 재학생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캠퍼스에서 2차례 대중 명상을 선보인 바 있으며, 당시 다른 학생들의 이목을 잡는데 주효했기 때문이다.

에비 커벤츠는 "대중 명상으로도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직접 찾아다니며 홍보 전단을 나눠주는 등 불교사교클럽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9월 중 공식 출범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불교사교클럽 결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제프 조로트닉은 샌디에이고에서 '달마범스(Dharma Bums) 사원'을 운영하는 재가법사로 과거 애리조나 대학의 재학시절 남성사교클럽을 이끌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제프 조로트닉 법사는 "애리조나 대학에 재학하고 있을 때 대만에서 유학 온 스님이 있었는데 스님이 캠퍼스 선후배에게 보여준 자비와 연민의 가치에 진한 감동을 느꼈다"며 "그것이 단초가 되어 스님을 중심으로 불교사교클럽을 결성했고 영적으로 풍요로운 대학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프 조로트닉 법사는 졸업 후 대만에서 불교를 공부하고, 2003년 미국으로 돌아와 지도법사로서 불교 포교에 매진했

다. 샌디에이고 대학 인근에 '달마 범스 사원'을 개원한 것은 그로부터 7년 후이다.

제프 조로트닉 법사는 "자비와 연민이야말로 대학 캠퍼스에서 꼭 필요할 덕목"이라고 강조하고 "두 불교사교클럽이 샌디에이고 대학의 공동체 문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아가 다른 대학에도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모았다.

제프 법사에 따르면 남·여 불교사교클럽은 보살을 서원하며 관대, 도덕, 인내, 근면, 집중력, 지혜를 실천 강령으로 삼고 있다. 즉, 파라미타의 서구적 표현이라고

## 2차 대중명상 선보여 '호우'

캠퍼서서 전단 돌리며 홍보

제프 법사 대학시절 경험 토대

"자비·연민 대학생에 꼭 필요"

할 수 있는 관대, 도덕, 인내, 근면, 집중력, 지혜를 실천해 보살을 서원하며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한편 'Daily Aztec'은 샌디에이고 대학의 남·여 불교사교클럽 결성에는 아시아 연구소를 맡고 있는 샌드라 웨릭코(Sandra Wawrytko) 교수도 적극 돕고 있다고 전했다.

"제프 법사의 노력이 대학의 영성을 높여줄 것"이라는 샌드라 웨릭코 교수는 "대학은 다양성에서 출발해 소통으로 발전하는 곳"이라며 "이런 점에서도 제프 법사가 추진하고 있는 불교사교클럽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2C 쿠산왕조 '거대 부처 조각상' 출토

8월 31일 인도 마인पुर리 지역 개인 농장서 발견  
머리 없는 부처조각상 외 유물 11점도

인도 한 마을의 텃밭에서 2세기경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물이 다량 출토돼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The Times of India' (이하 TOI) 9월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마인पुर리(Mainpuri)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농장서 밭을 일구다 석가모니 부처 조각상을 발굴했다. TOI는 "8월 31일(현지 시간) 마인पुर리 지역의 팔토리(Gwaltoli) 마을에 위치한 마노이 야다브(Manoj Yadav · 남)씨 개인 소유 농장에서 약 100kg 가량 무게의 머리가 없는 부처 조각상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불교 유물 11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유물들은 카니슈카(2세기 쿠산 왕조의 제3대 왕) 왕조 때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초드리 차란 싱 대학원 부교수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팔토리 마을로부터 약 1km 떨어진 아쇼리(Asyoli) 마을서 고대 시바신 조각상이 발견됐는데 또다시 쿠산 왕조 유물이 출토된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들은 유물 11점 중 머리가 없는 부처상을 나무 아래에 두고 숭배해왔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마인पुर리(Mainpuri) 지역 팔토리(Gwaltoli) 마을에 위치한 마노이 야다브(Manoj Yadav · 남)씨 개인 소유 농장에서 약 100kg 가량 무게의 머리가 없는 부처 조각상을 포함한 크고 작은 불교 유물 11점이 발견됐다. 사진출처=TOI

하지만 이 부처상을 제외한 나머지 유물들 중 몇 점은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도난당했다.

이에 대해 인도 경찰 당국은 "출토품들의 역사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올바르게 보

존될 수 있도록 정부 문화부 산하 인도국립 고고학조사단(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에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라고 1일 TOI를 통해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禪農教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宗正 洪山 현불

종도모집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문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 1) 입종 구비서류

-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 반명함판 사진 3매
-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 사찰 등록증
- ◇ 주지 임명장
-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집합니다.